

五液中 ‘涕’의 의미에 대한 고찰

¹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²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³제한동의학술원 · ⁴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장희원¹ · 송지청^{2, 3} · 엄동명^{1, 4} *

Study on the Meaning of Nasal discharge(涕) in Five fluids

Jang Heewon¹ · Song Jichung^{2, 3} · Eom Dongmyung^{1, 4} *

¹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

²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

³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

⁴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

Objectives : The paper raises an objection to the word ‘涕’ being used to refer to nasal discharge, and proposes a word for nasal discharge upon studying a set of medical books.

Methods : The author finds and confirms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涕’ and studies how they are used differently in medical books.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shows how the word ‘涕’ is used incorrectly and makes deductions for its reason. The author takes a look at the old form of the word ‘涕’, its etymological origin, takes a guess as to the real word that should have been used to refer to nasal discharge, and find examples of instances where this correct word for nasal discharge are more appropriate.

Results & Conclusions : In medical books such as *Huangdineijing·Suwen*, ‘涕’ is used to mean nasal discharge, but the word’s dictionary definition does not validate such usage. Yugunryeombu (劉君廉夫), in its commentary for *Somun*, used ‘淚’ and ‘鼻淚’ for ‘涕’, and ‘淚’ means nasal discharge and used as same as ‘涕’ when its used to mean tear. This is a phenomenon that originated from ‘涕’ and ‘夷’ being used interchangeably which led to the incorrect usage of ‘淚’. If someone were to refer to nasal discharge, he needs to use ‘淚’. ‘鼻淚’ is believed to be the same word as ‘鼻淚’, which is the old form of ‘淚’, and it means both tear(pronounced ‘Che’) and nasal discharge(pronounced ‘Je’). However, the pronunciation different between ‘Che’ and ‘Je’, and its definition as tear, is divided in later periods into ‘涕’ following the shape of ‘涕’. Following the shape of ‘夷’, the meaning of nasal discharge remains in ‘淚’ while retaining the pronunciation of ‘yi’. Therefore, the word ‘涕’ used to mean nasal discharge is an incorrect form of ‘淚’, and should all be re-written to ‘淚’.

Key Words : Tear(涕), Nasal discharge(淚), Five fluids(五液), Terminology

I. 서론

五液은 신체에서 생성, 분비되는 여러 津液의 일종으로, 五臟의 竅를 통해 배출되어 本藏의 생리, 병리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진단 근거이다. 肝, 心, 脾, 肺, 腎에 각기 대응하는 五液은 ‘淚, 汗, 涎, 涕, 唾’¹⁾로, 의서에 따라 同字를 사용하여 ‘泣, 汗, 涎, 涕, 唾’²⁾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나 그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그 중 ‘涕’는 肺의 液으로서 肺의 생리, 병리적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涕’의 의미에 대해 『한의학총강』에서는 肺의 在液謂涕를 설명하며 “涕는 눈물과 콧물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는 콧물을 의미한다.”³⁾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涕’의 사전적인 뜻 중에는 콧물이 없어 기록된 글자와 내포된 의미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이전의 五液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안⁴⁾ 등이 五液의 분류와 생리 및 병리 변화 양상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으며, ‘涕’라는 글자 자체에 대해서는 鍾⁵⁾이 洩, 泗, 涕 등 콧물을 의미하는 용어의 시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付⁶⁾는 눈물을 의미하는 용어가 涕-泗-泣의 순서로 발생되었음을 고찰한 韓⁷⁾의 연구를 인용하여 涕의 의미에 대

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그 원인을 고찰하고 글자의 의미를 명확히 구별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涕’가 콧물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헌 고찰을 통해 콧물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 원래의 글자가 무엇인지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涕’의 의미에 대한 문제제기

‘涕’가 肺의 液으로써 콧물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素問宣明五氣』의 “五臟化液 … 肺爲涕”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문장에 대해 王冰은 “潤於鼻竅也.”⁹⁾, 吳崑은 “涕而於鼻, 肺之竅也. 故爲肺液.”¹⁰⁾이라 주석하여 ‘涕’를 콧물의 의미로 서술하였다. 또한 『素問氣厥論』에서도 “鼻淵者, 濁涕下不止也.”¹¹⁾라 하여 병증의 표현에 있어서도 ‘涕’를 콧물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을 찾아보면 ‘涕’는 ① 눈물 체(淚也) ② 울 체(泣也)¹²⁾의 두 가지 의미만 있을 뿐 콧물의 의미가 없다. 이는 『說文解字』에서도 마찬가지로 “涕, 泣也. 從水弟聲.”¹³⁾이라 하여 눈물의 의미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涕’의 사전적 의미에는 콧물의 의미가 전혀 없으며, 단지 관습적으로 의서 안에서만 ‘涕’를 콧물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용례가 아니다.

2. 涕의 誤用에 대한 단서

『素問金匱眞言論』의 “故冬不按蹠, 春不舐衄”의

pp.125-127.에서 제인용.)

* Corresponding Author : Eom Dongmyung. 312 Prof. Graduate of Korean Medicine Building,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City, Jeonbuk, ROK. Tel : 063-850-6941 Fax : 063-842-4328 Email : haksan@wku.ac.kr Received(25 July 2016), Revised(17 August 2016), Accepted(18 August 2016).

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2. 「宣明五氣」 “五臟化液, 心爲汗, 肺爲涕, 肝爲淚, 脾爲涎, 腎爲唾, 是謂五液.”
2) 李梴. 編註醫學入門(卷1).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317. 「臟腑總論」 “腎主液, 自入爲唾, 入肝爲泣, 入心爲汗, 入脾爲涎, 入肺爲涕.”
3) 나창수 외 18인.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13. p.256.
4) 안중은, 강경수. 五液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3. 12(1), pp.71-78.
5) 鍾明立. “洩, 泗/涕/鼻涕” 曆時更替考. 華南師範大學學報. 2007. 2. pp.71-74.
6) 付義琴. 涕有鼻涕義不是語義引申. 殷都學刊. 2008. 29(4). pp.125-127.
7) 韓陳其. 漢語詞匯論稿.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p.224. (付義琴. 涕有鼻涕義不是語義引申. 殷都學刊. 2008. 29(4).

8)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2.
9)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역.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王冰注(卷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466.
10)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19.
1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0.
12) 李家源, 張三植 著. 詳解漢字大典. 서울. 裕庚出版社. 1973. p.855.
13) 殷玉裁 著. 許慎 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565-566.

문장에 대한 王氷의 주석을 살펴보면 “飮, 謂鼻中水出.”¹⁴⁾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劉君廉夫는 다음과 같이 다시 주석하였다.

“『說文』‘飮, 病寒鼻塞也.’… 王氏乃爲涕之意, 未詳所據. 涕, 飮同, 鼻液也.”¹⁵⁾

이 문장을 살펴보면, 王氷은 ‘飮’을 콧물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劉君廉夫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로 ‘涕’와 그 同字인 ‘飮’를 제시하였다.

이 중 ‘涕’의 사전적 의미는 ① 콧물 이(鼻液) ② 눈물 이(淚也) ③ 못이름 이(澤名, 溫涕)¹⁶⁾로 눈물과 콧물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다른 사전에서는 涕의 ‘눈물’의 의미에 해당하는 同字로 ‘淚’ 외에 ‘涕’를 제시¹⁷⁾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說文解字』에서는 ‘涕’에 대해 “涕, 鼻液也. 從水夷聲.”¹⁸⁾이라 하여 콧물의 의미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涕’의 본래 의미는 ‘콧물’에 보다 가까우며, ‘눈물’의 의미를 가진 것은 ‘涕’와 ‘淚’가 同字로 쓰였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의서에서 콧물의 의미로 쓰인 ‘涕’는 실제로는 ‘淚’로 쓰였어야 하며, 잘못 바뀌어 쓰인 ‘涕’가 계속해서 ‘콧물’의 의미로 오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說文解字注』에서도 ‘涕’의 의미에 대해 주석하면서 “古書弟夷二字多相亂, 於是謂自鼻出者曰涕, 而自目出者別製淚字. 皆許不取也, 『素問』謂目之水爲淚, 謂腦滲爲涕.”¹⁹⁾라 하여 ‘弟’와 ‘夷’ 사이에 사용상의 혼란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 예시로 『素問·解精微論』에서 콧물의 의미로 ‘涕’를 사용한 문

장을 제시하고 있어, 콧물을 의미하는 ‘涕’는 ‘淚’의 오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콧물의 의미로 제시된 또 다른 한자인 ‘飮’의 경우 사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자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를 『新修康熙字典』에 제시된 ‘涕’의 해설을 통해 찾을 수 있다.

『新修康熙字典』에서는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涕’의 의미를

- ① 鼻液也. 音夷
- ② 溫涕, 澤名. 音夷
- ③ 與涕同. 音替, 音體²⁰⁾

의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涕의 古文字로 ‘飮’를 제시하고 있다.

‘飮’의 의미를 『新修康熙字典』에서 다시금 찾아보면, ‘飮’는 ‘涕’와 同字로 좌우를 바꾸어 썼을 뿐²¹⁾이라고 하였다. 또한 ‘涕’에 대해서는

- ① 鼻飮. 音替
- ② 去涕也. 音體
- ③ 涕也. 音洗²²⁾

와 같이 눈물과 콧물의 의미가 모두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劉君廉夫가 ‘涕’를 ‘飮’가 아닌 ‘飮’라고 서술하고 있음을 볼 때, ‘涕’와 ‘涕’가 어지러이 섞여 쓰이게 된 것과 같이 ‘飮’ 역시도 ‘飮’와 섞여 쓰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飮’ 혹은 ‘涕’는 콧물, 눈물의 뜻을 나타낼 때에 각기 ‘替, 體(체)’의 발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후대에 ‘涕’로 바뀌고서는 ‘替, 體(체)’의 발음은 눈물의 의미를 가진 ‘涕’의 의미에만 남아있다. 콧물의 뜻으로는 ‘夷(이)’의 새로운 발음을 갖게 되는데 ‘涕’는 從水從夷하니 ‘夷’에서 그 음을 가지고 온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飮’가 가진 눈물의 의미는

14) 윤창열, 이남규, 김선호 역.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王氷注 (卷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72.

15) 山田業廣 著. 素問次注集疏(上).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96.

16) 李家源, 張三植 著. 詳解漢字大典. 서울. 裕庚出版社. 1973. p.841.

17) 민중서림 편집국. 漢韓大字典. 과주. 민중서림. 2009. p.1217. “[涕] ① 콧물 이. 鼻液 ② 눈물 체. 涕와 同字.”

18) 殷玉裁 著. 許慎 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65.

19) 殷玉裁 著. 許慎 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65.

20) 凌紹雯 著. 高樹藩 重修. 新修康熙字典. 台北. 啓業書局. 1984. p.889.

21) 凌紹雯 著. 高樹藩 重修. 新修康熙字典. 台北. 啓業書局. 1984. p.2407.

22) 凌紹雯 著. 高樹藩 重修. 新修康熙字典. 台北. 啓業書局. 1984. p.2407.

‘涕’의 음과 형태를 따라 ‘涕’로 나누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𩇛’가 가진 콧물의 의미는 ‘𩇛’와 혼용되는 과정 속에서 ‘夷’의 음과 글자를 따라 ‘洩’로 나누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涕’와 ‘洩’가 뒤섞여 쓰인 흔적은 ‘洩’에 남아 ‘涕’와 同字로써 눈물의 의미를 갖기도 하나, ‘涕’는 완전히 그 뜻이 분리되어 콧물의 의미로 혼용되지 않고 눈물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그 사용상의 혼란에 의해 때로 ‘洩’가 눈물의 뜻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涕’가 콧물의 뜻으로 사용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따라서 콧물의 의미를 가지고 쓰인 ‘涕’는 ‘洩’로 표기하여야 한다.

3. 洩의 사용례

실제 ‘洩’는 여러 문헌에서 ‘涕’와 구별되어 콧물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洩’와 ‘涕’의 의미상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

1) 『禮記·檀弓上』 “將軍文子之喪, 既除喪而后, 越人來吊, 主人深衣練冠, 待于廟, 垂涕洩, 子游觀之, 曰將軍文氏之子其庶幾乎.”²³⁾

위 문장에서 ‘垂涕洩’는 ‘눈물, 콧물을 흘리다’의 의미로 喪을 당하여 곡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 문장에 대해 『禮記正義』에서는 “目垂涕, 鼻垂洩”라고 주석²⁴⁾하여 涕와 洩가 각각 눈물, 콧물의 의미로 구별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周易·萃卦』 “上六, 齋咨涕洩, 無咎.”²⁵⁾

위 문장에서 ‘齋咨涕洩’는 ‘탄식하고 슬퍼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장에 대해 鄭玄은 “自目曰涕, 自鼻曰洩”라고 주석²⁶⁾

하여 마찬가지로 涕와 洩가 각각 눈물, 콧물의 의미로 구별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黃帝內經太素水論』 “曰請問哭泣而淚不出者, 若出而少涕, 其故何也? 【注】泣從目下, 涕自鼻出, 間爲一液也, 故人哭之時, 涕泣交連. 然有哭而無泣, 縱有泣涕少何也? 涕, 洩也.”²⁷⁾

위 문장에서 「水論」의 원래 문장은 주석에서 ‘涕自鼻出’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涕를 콧물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楊上善은 계속된 주석에서 ‘涕, 洩也.’라 하여 涕가 洩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여기서의 洩는 문맥상 콧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臟腑氣液」에서는 “五液, 心主汗, 肝主泪, 肺主涕, 腎主唾, 脾主涎, 此五液所生. 【注】…肺通於鼻, 鼻中之液, 謂之涕也. …”²⁸⁾라 하여 「水論」의 주석과는 달리 涕를 콧물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太素』 저작 당시에 「水論」의 문장과 같이 涕와 洩는 이미 그 뜻과 표기가 구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문장 상에서 두 글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어서, 「臟腑氣液」의 문장과 같이 동일한 서적 안에서도 涕와 洩를 혼용하는 오류 또한 여전히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III. 고찰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학 서적에서 흔히 콧물의 의미로 사용하였던 ‘涕’는 실제로는 콧물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본래 콧물의 의미를 가진 글자는 ‘洩’이고, ‘涕’는 눈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夷’와 ‘弟’가 섞여 쓰이면서 ‘涕’를 ‘洩’가 가진 콧물의 의미로 잘못 사용하는 예가 생겨났음을 알

23) 學民文化社 編輯部. 禮記(元). 대전. 學民文化社. 1990. pp.354-355.

24) 殷玉裁 著. 許慎 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65.

25) 學民文化社 編輯部. 周易 附診解(三). 대전. 學民文化社. 1998. p.364.

26) 學民文化社 編輯部. 周易 附診解(三). 대전. 學民文化社. 1998. p.365.

27)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903.

2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148.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이 빚어진 것은 『說文解字注』에서 언급하였듯 ‘弟’와 ‘夷’가 뒤섞여 쓰였기 때문이다. 두 글자는 전체적인 모양새가 비슷하여 ‘弟’에서 ‘ㄷ’, ‘ㄹ’, ‘ㅣ’, ‘ノ’ 획을 약간만 달리 쓰면 ‘夷’의 형태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說文解字』 이전에 이미 ‘𩇑’ 또는 ‘𩇑’가 눈물, 콧물의 의미로 혼용해서 쓰였는데, 替 또는 體 발음의 從水從弟는 눈물의 의미로 쓰이고, 夷 발음의 從水從夷는 콧물의 의미로 나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太素』의 문장을 통해 보면, ‘涕’와 ‘淚’의 구별이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涕’와 ‘淚’를 혼용하는 오류는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즉, 그동안 여러 의서에서 ‘涕’를 콧물의 의미로 사용하여 현재에까지 이른 것은 ‘夷’와 ‘弟’의 혼란으로 인해 ‘淚’를 ‘涕’로 오용한 것이 인용을 거듭하며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涕’와 ‘淚’의 분화 과정과 그 발음 및 의미상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콧물의 의미로 쓰인 ‘涕’는 모두 콧물의 뜻을 가진 본래의 글자 ‘淚’로 바꾸어 써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五液 또한 ‘淚, 汗, 涎, 涕, 唾’가 아닌 ‘淚, 汗, 涎, 淚, 唾’로 표기하여야만 한다.

IV. 결 론

1. 五液에서 콧물의 의미로 쓰인 涕는 실제 콧물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눈물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2. 콧물, 눈물의 의미로 쓰였던 한자로는 ‘𩇑’, ‘𩇑’, ‘𩇑’ 등이 있으며, 후에 음과 형태를 따라 눈물의 의미를 가진 ‘涕’와 콧물의 의미를 가진 ‘淚’로 분화되었다.

3. ‘涕’가 콧물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夷’와 ‘弟’의 사용상의 혼란에 의해 ‘淚’를 ‘涕’로 잘못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4. 콧물의 의미로 쓰인 ‘涕’는 모두 誤字이며 ‘淚’로 바꾸어 써야 한다.

References

-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ong Somun. Seoul. Publishing Dept. of Inst.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 Lee C. Pyeonju Euihakyibmun(1). Seoul. Daesung Cultural Publishing Co.. 1984.
李榭. 編註醫學入門(卷1). 서울. 大星文化社. 1984.
- Na CS et al.. Haneuihak Chonggang. Seoul. Euisungdang. 2013.
나창수 外 18人.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13.
- Yun CY, Lee NG, Kim SH trans.. Hyeontowanyeok Hwangjenaegyong Somun Wangbingju(1). Daejeon. Jumin Publishing Co.. 2003.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譯. 懸吐遺譯 黃帝內經素問王冰注(卷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 Oh G. Hwangjenaegyong Somun Ohju. Beijing. Hakwon Publishing Co.. 2001.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 Lee GW, Jang SS. Sanghae Hanjadaejeon. Seoul. Yukyung Publishing Co.. 1973.
李家源, 張三植 著. 詳解漢字大典. 서울. 裕庚出版社. 1973.
- Eun OJ original work. Heo S annot.. Seolmunhaejaju. Seoul. Daesung Publishing Co.. 1990.
殷玉裁 著. 許愼 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 Yamada HH. Somun Chajujipso(1). Beijing. Hakwon Publishing Co. 2004.
山田業廣 著. 素問次注集疏(上). 北京. 學苑出

- 版社. 2004.
9. Editing Dept. of Minjungseorim. Hanhandaejajeon. Paju. Minjungseorim. 2009.
민중서림 편집국. 漢韓大字典. 파주. 민중서림. 2009.
10. Neung SM original work. Go SB edit.. Shinsu Ganghuijajeon. Taipei. Gyeep Publishing Co.. 1984.
凌紹雯 著. 高樹藩 重修. 新修康熙字典. 台北. 啓業書局. 1984.
11. Editing Dept. of Hakminmunhwasa. Yegi(1). Daejeon. Hakmin Cultural Publishing Co.. 1990.
學民文化社 編輯部. 禮記(元). 대전. 學民文化社. 1990.
12. Editing Dept. of Hakminmunhwasa. Juyeok Bueonhae(3). Daejeon. Hakmin Cultural Publishing Co.. 1998.
學民文化社 編輯部. 周易 附診解(三). 대전. 學民文化社. 1998.
13. Yang SS. Hwangjenaegyong Taeso. Beij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Literature Publishing Co.. 200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14. Zhong ML. A Review on the Diachronic Substitutions for Chinese characters Yi(洩), Si(泗), Ti(涕) and the word Biti(鼻涕). J. South China Normal Univ.. 2007. 2.
鍾明立. “洩, 泗/涕/鼻涕”曆時更替考. 華南師範大學學報. 2007. 2.
15. Fu YQ. The Reason About the Nasal Mucus Meaning of Ti(涕) could not be Its Extended Meaning. Yindu Journal. 2008. 29(4).
付義琴. 涕有鼻涕義不是語義引申. 殷都學刊. 2008. 29(4).
16. Discussion on Chinese Vocabulary. Nanjing. Jiangsu Classics Publishing Co.. 2002.
韓陳其. 漢語詞匯論稿.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17. An JE, Kang JS. Study on the Five Fluids. J. Korean Medical Inst. in Daejeon Univ.. 2003.
안중은, 강정수. 五液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3.